

# 제목만 슬쩍...전남 지자체들 '꼼수' 정보공개

### 완도·장흥·구례·여수 등 내용 없이 표지만 달랑 올려 정부 실적 평가 공개율 높이기...행안부 특별 점검 검토

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의 생색내기식 정보공개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개 자료라며 올려놓고도 정작 내용을 썩 뺀 걸 표지만 게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와 정부 투명성을 높여준다는 정부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까지 실시한 '정부3.0 실적 평가' 항목에 포함된 '원문정보 공개율'을 높이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기관에 대한 특별 점검을 검토하기로 했다.

◇말로만 떠들어=전남지역 자치단체들 상당수는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공개 가능한 국장급 이상 모든 결

재 문서를 공개하고 있지만 확인 결과, 공개 목록만 기재한 게 적지 않았다.

완도군의 경우 지난달 26일 '2017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입장권 구매계획'이라는 자료를 '공개' 형태로 올려놓고도 내용은 올리지 않았다.

구례군도 지난달 11일 같은 내용의 '2017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입장권 구매계획'을 내용은 썩 빼고 제목만 올렸다. 알맹이가 전혀 없는데도 '공개'했다고 생색을 낸 셈으로, "공개자료 형태로 올렸다면 내용도 함께 공개하는 게 맞다"는 게 행정안전부 정보공개담당부서 설명이다.

완도군은 지난달 7일 생산한 '인구시책

종합 안내책자 제작' 자료도 제목이 적힌 표지만 올려놓고 '공개'했다고 표시했다.

장흥군도 다르지 않다. 지난달 28일 '공개'자료라며 정보공개포털에 올린 '2017년(16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우수 기관 포상금 사용계획'은 표지 한 장만 공개했다.

신안군도 비슷하다. '2018년도 신규시책 및 국고 현안사업'이라는 제목의 '공개' 자료는 구체적 내용의 자료를 제외하고 공개했다.

여수시가 지난달 15일과 26일 공개 자료로 올린 '단독주택이 분사거함 설치 검토 보고' 자료도 제목만 적힌 맹탕 자료다. 합평군이 지난달 26일 '공개' 형태로 올린 '2018 곤충산업 주요업무 추진계획'도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제목만 공개된 자료다.

◇부분 공개 대신 공개로 올려놓고 제목만=정부의 정보공개포털(open.go.kr)

은 공개·부분 공개 등으로 나누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상당수 전남 자치단체들은 제목이 적힌 표지만 올려놓고도 부분 공개 대신, 공개 형태로 자료를 올려놓아 반쪽을 사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난해까지 '정부3.0 실적 평가' 항목에 원문정보 공개율을 반영했다는 점을 들어 공개율을 높이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말도 흘러나온다.

이 때문에 원문정보 공개율에 대한 재조사와 생색내기식 정보공개에 머물고 있는 자치단체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일부 자치단체의 문서관리체계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며 "정부의 제도 운영 취지에 맞도록 관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완도=정은조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 진도군 인구 2500명 늘리기 5년간 3억 6000만원 쓴다는데...

### 조례 제정...본격 시행 실현 여부는 미지수

진도군이 향후 5년간 3억6000만원을 투입, 인구늘리기 정책을 펼칠 예정이지만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9일 진도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를 제정, 입법예고한 뒤 이달 군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전입 장려금으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전입신고세대에 대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20ℓ 20매)를 나눠주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또 국적을 취득하고 군에 주민등록을 한 이후 6개월 이상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정착금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을 주는 방안도 담겼다.

전입 이후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

는 임직원을 10명 이상 둔 기관·단체·기업·군부대에 대해서도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키로 했다.

진도군은 이같은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하는 데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3억6000만원을 들 것으로 계산했다. 전입장려금(500명) 5000만원,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비(1000세대) 440만원, 다문화가정 정착금(20명) 200만원, 기관·단체 지원금 1000만원, 전입자 기초건강검진 시약품 구입비(100명) 600만원 등 매년 72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진도군 인구는 ▲2010년 3만3743명 ▲2011년 3만3502명 ▲2013년 3만2998명 ▲2015년 3만2476명 ▲2016년 3만2078명 ▲2017년 8월 3만1853명 등으로 줄고 있다.

이때문에 진도군이 매년 500명씩, 5년간 2500명에게 지원하겠다고 편성할 예산을 쓸 수 있을 지 회의적 시각이 많다. /진도=박현영기자 hyupark@

## 완도군, 목포대와 예비신청서 작성 용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본격화

완도군이 청산도와 보길도를 비롯한 완도군 전역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하기 위한 본격적 행보를 시작했다.

완도군은 지난달 29일 목포대와 군 전역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하기 위한 예비신청서 작성 용역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을 대상으로 유네스코에서 선정하는 3대 보호지역(세계유산,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중 하나다.

목포대는 내년 10월까지 1년간 유엔 식

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청산도 구들장 논을 비롯, 운선도가 머물던 원림(園林),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등 지역 고유의 생태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가치를 도출해낼 계획이다.

완도군은 용역을 통해 생물권보전지역 내 핵심구역, 완충구역, 협력구역 등을 세부화하는 구상을 구체화한다는 복안이다.

완도군은 이후 본 신청서 제출을 위한 현지실사를 거쳐 최종 신청서 제출 및 최종 심사 등을 꼼꼼히 준비, 오는 2021년 등재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완도=정은조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보길도 윤선도 원림 국수당 전경. <완도군 제공>

■해남 주요 관광지 관광객 및 입장료 현황 (단위: 명, 천원)

관광지별	2016년		2017년		관광객 대비 증감률(%)	입장료 대비 증감률(%)
	관광객	입장료수입	관광객	입장료수입		
합계	564.604	568.642	557.560	588.555	감 1.2	증 3.5
공룡박물관	166.628	261.850	163.270	263.430	감 2.2	증 0.6
땅끝전망대	242.029	111.647	227.546	102.383	감 6.36	감 9.05
오토캠핑장	11.308	113.758	12.441	138.683	증 9.11	증 17.97
우수영관광지	82.036	48.284	94.118	56.870	증 14.7	증 17.8
고산유적지	62.603	33.103	60.428	27.189	감 3.5	감 17.9

(2016.1.1~2016.8.31, 2017.1.1~2017.8.31) <해남군 제공>

## 해남군 관광객 줄고 입장료 수입은 늘어

해남 지역 무료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은 감소한 반면, 유료 입장객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해남군에 따르면 관광지관리사업소가 올해 8월 말까지 해남 지역 주요 관광지 관람객·입장료 수입 등을 조사한 결과, 전년도 같은 기간에 견줘 관람객은 감소했지만 입장료 수입은 늘어났다.

관광지관리사업소는 공룡박물관·땅끝전망대·오토캠핑장·우수영관광지·고산유적지 등 5곳에 대한 관람객과 입장료 수입을 비교 분석했다.

올 해 8월 말까지 전체 관람객은 55만 7560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56만4604명)에 비해 1.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입장료 수입은 5억8800만원을 걷어들여 전년도(5억6800만원)보다 3.

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오토캠핑장은 전년도(관람객 1만1308명·입장료수입 1억1300만원)보다 관람객은 9.11%(1만2441명), 입장료 수입은 17.97%(1억3800만원) 증가했다. 우수영관광지도 전년도 관람객(8만2036명)보다 늘어난 9만4118명이 올 해 같은기간 찾았고 입장료 수입도 5600만원으로 전년도(4800만원)보다 많았다.

땅끝 전망대는 상시 관광 테마 요인이 없어 관람객이 전년도보다 6.36% 감소했다.

해남군측은 땅끝 전망대 9층 불투명 유리를 교체, 전망 관망 시야를 넓히고 공동화시설 내 가상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등 관광지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 완도군 서부발전과 손잡고 해상풍력 개발

### 공동개발 양해각서 체결

완도가 한국서부발전과 손잡고 해상풍력 개발에 나선다.

완도군은 지난달 27일 서부발전, 완도 해상풍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

서부발전은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150MW급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추가로 입지를 개발해 다른 신재생

에너지 보급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완도군은 이 과정에서 인허가 등 행정 지원에 나서게 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업무협약을 통해 해상풍력단지 내 양식시설 설치로 어민들과 협력해 공동개발 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철 서부발전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업이 지자체와 공공기관 간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의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도=정은조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공동개발 양해각서 체결식. 2017. 9. 27. (수) / 완도군청 상황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산구 월곡동 복합스포츠타운 수익률최상 대지 3,906㎡ 건물 2,689㎡  
매매 81억 투자자가능 (수영장, 키즈카페, 사우나)
- ★ [건물] 서구 쌍촌동 메인상권 지하2층 지상10층 (사옥최적합 대로변, 병원가능)  
대지 777㎡ 건물 5,900㎡ 매매 55억 (보17억1천 월1천1백 5십만)
- ★ [건물] 동구 동명동 대로변접 상가주택건물 5층  
대지 452㎡ 건물 1,464㎡ 매매 17억 (사우나)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주상복합, 쇼핑타운적합부지)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병원**

- ★ [의료시설] 광산구 신가동 요양병원 지하층~지상4층  
대지 3,000㎡ 건물 3,568㎡ 매매 56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지하층 지상7층  
토지 1,490㎡ 건물 6,646㎡ 최신시설 매매 75억
- ★ [의료시설] 광주시 서구 농성동 지상5층  
토지 2,319㎡ 건물 3,998㎡ 매매 73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북구 신안동 지하층 지상4층  
토지 330㎡ 건물 995㎡ 최신시설 매매 30억 월수익1천5백만
- ★ [의료시설] 전남 화순읍 신기리 지하층 지상4층  
토지 8,630㎡ 건물 6,300㎡ 매매가 (상담요망)

**토지 추천 물건**

- ★ [토지] 제주도 강정마을 (펜션, 타운하우스부지) 바다 한라산 조망권최상 대지 15,716㎡ 매매가 평당220만원(교환, 조정가)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우수 인근 27홀 골프장 시설 부지 확정
- ★ [토지] 동구 지산유원지 대로변접 자연녹지지역  
대지 1,948㎡ 매매 27억 7천만 카페거리상권
- ★ [토지]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  
대지 3,041㎡ 매매가 평당70만원(조정가)
- ★ [토지] 담양군 창평면 장화리  
대지 7,226㎡ 매매가 평당50만원(조정가)
- ★ [토지] 전남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편백나무숲길  
대지 2,720㎡ 매매7억 펜션부지, 전원주택 적합

**광주, 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 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김재훈 062-714-2251**